

종합소식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마련 □

식품업계 최하 2 배에서 최고 10 배까지

自社제품 불량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 그 가격의 최고 10 배까지 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관계 당국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량음료·마요네즈·케첩·식용유·다류·면류·우유·육가공품·설탕·조미료품·제빵류 등 10 개 품목에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용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제품이 변질됐을 때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최하 2 배에서 최고 10 배까지 보상해 주도록 조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량음료의 경우는 해당제품의 10 배, 면류는 5 배, 육가공품과 조미식품은 3 배, 마요네즈 및 케첩과 다류 등은 2 배를 배상하게 된다.

또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육가공품과 면류제품은 그 배를 보상해주며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정상제품으로 교환해 주도록 되어 있다.

□ 저능력 젖소 5 만 8 천두 도태 예정 □

정부는 낙농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올해 안으로 저능력우(젖소) 5 만 8 천두를 도태시켜 나갈 것은 물론 국내 사료자급 기반도 늘린다는 방침아래 조사료의 생산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

갈 계획이다.

이는 농수산부가 낙농가의 경영합리화와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능력이 있는 젖소만을 사육함으로써 저능력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낙농가의 경영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수산부는 균형있고 합리적인 낙농육성을 위해 원유가격 결정에 생산자 단체를 참여시키는 한편 원유의 집유제도 역시 관계법 개정과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으로 국내의 낙농을 조사료 위주로 전환키 위해 일반초지 5 천 5 백 ha (1 ha 이상), 농고 실습용 초지 14 개소 1 백 40 ha, 축협 시범지 9 개소 3 백 60 ha를 각각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농수산물 가공업체 육성지원 □

86·88 대비 제품의 고급화 추진목적

정부는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대비, 농수산물 통조림의 가공기술 및 가공시설 개발과 제품의 고급화를 적극 추진시키기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식품업계는 양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전통음식의 통조림화는 개발이 미흡한 실정인데다 농수산물을 이용한 통조림산업 자체가 초보적 단계에 있다고 지적, 점차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통조림 업체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우선 18 억원을 투입,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이용해 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하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판로확대 자

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농협과 통조림수출조합의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수출실적금액의 50%와 올 수출계획금액의 50%를 서로 합산한 금액의 80%내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2천3백50만 달러어치의 농수산물통조림을 수출했으며 금년에는 23.4%로 늘어난 2천9백만달러를 수출할 계획이다.

□ 제 5 차 아시아 수의사회연맹 총회 열릴 예정 □

제 5 차 아시아수의사회연맹총회(FAVA) 가오는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4 일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서의 논문발표 신청은 4월 30일까지 논문초록을 총회조직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참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사무처 및 각 시도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 제22차 국제낙농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예정 □

오는 9 월, 화란에서

제22차 국제낙농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오는 9월29일부터10월3일까지 네덜란드 Hague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낙농학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대학·연구기관·업계 및 정부등이 참가하여 생산·가공·품질관리·연구개발·유통소비·사양등 전 낙농분야에 걸쳐 문제의 제기와 토론회·전시회 등을 가지게 된다.

대회 참가희망자는 수원 서울농대 유가공 연구실 김 현욱교수(전화: 0331~43~5828)에게 연락하면 된다.

□ 「제1 회 국제축산기술 기계전」 동경에서 개최 예정 □

1986년 4월21일부터24일까지 동경에서「제1 회 국제 축산기술 기계전」이 열리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게 될 세계적 규모의 이 전시회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울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 전시회의 전시품목은 가금, 돼지, 소의 사육생산에 관계되는 기기 및 제품과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월간 종합축산 전화 555~4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야간 사료급여로 주간분만 유도시험 □

미국 Kent사료회사의 반추영양학자 Gary Kellogg 박사는 임신우 사료를 밤늦게 급여하므로써 대부분의 분만을 주간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최근 그의 시험결과에서 주장했다.

이와같은 사양기술은 임신우의 사료섭취로 인한 활발한 육체 및 대사활동을 이용하여 분만과정의 진행이 야간에는 억제되고 편히 설수 있는 주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Kellogg 박사가 Kent 시험농장에서 조사 한바에 의하면 초임우에게 분만기 2 주전부터 배합 사료를 밤 9 시30분에서 10시 까지 급여한후 다음날 아침 7 시30분까지 건초를 자유채식시킨 후 야외운동장으로 내 놓는 사양관리를 한 결과 94.5%가 관리인이 관찰하기 좋은 아침 6 시에서, 밤10시사이에 분만했다고 밝힘으로서 야간 사료급여가 주간 분만유도에 유효함을 밝혔다.

□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이오직)가 협회 해

산 결의에 따른 총회 회의록을 지난 11월25일 농수산부에 제출, 이날 조합설립 인가증을 교부 받았다. 설립이 인가됨으로써 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은 2 주 이내에 조합업무를 개시해야 하며 업무 개시 3 주 이내에 출자를 완료하고 완료 2 주 이내에 법원 등기를 마친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동물약품협회는 회원생산업체의 영세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을 형성, 생산기반을 확고히 함과 아울러 공동목표 추진을 위해 협회 해산을 결의한 바 있다.

□ 녹십자 수의약품, 젃소용 대용유 「덴카비트」 생산시판 □

녹십자수의약품(주) (대표이사·장인상) 이 대용유 전문제조업체인 덴카비트社와 기술제휴를 맺고 국내에서 덴카비트대용유를 생산, 본격 시판에 나섰다.

덴카비트 대용유는 송아지가 쉽게 소화흡수할 수 있는 유제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특히 단백질에너지 비율이 송아지의 발육생리에 적합하도록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초발육을 촉진시켜 고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주는 것이 특징으로 호평이 기대되고 있다.

□ 가축의 적정사육두수 산출 □

현재 부업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체질개선의 필요성을 감안, 농촌경제연구원(원장·김영진)이 추정자료를 발표하였다.

가축사육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효율을 생산을하기 위한 가축의 적정 사육두수를 보면 비육우 7두, 젃소 13두, 비육돈 1백41두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농촌경제연구원 허신행·이성규 박사에게 의하여 74년부터 84년까지 농수산부 통계

자료와 축협중앙회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사육두수와 사육농가수 비용함수를 이용, 추정한 것인데, 현재 국내에서 적정사육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를 살펴보면 한우가 전체의 1.5%, 젃소 13.8%, 돼지 1.2%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앞으로의 사육규모 확대는 조사료 개발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초지조성의 확충은 물론, 조사료의 확보가 시급히 서둘러져야 할 시기임을 지적하고 있다.

■ 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에 김성훈교수 선임

한국식품유통학회가 지난 12월 14일 정기 총회에서 김성훈(중앙대)교수를 새회장에 선임했다.

또 부회장에는 권원달(충북대)교수, 정복조(고려대)교수가 선임되었으며 오는 80년으로 임기만료되는 김성훈회장의 후임에는 성배영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선임했다.

■ 대한육가공협회 사무실 이전

대한육가공협회(회장·김동곤)가 지난해12월 17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0~1 (궁전예식장 203호)
- 전화: 463~0042

□ (주)서광유업 사무실안내 □

(주)서광유업(대표이사 張翼龍)이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 360-19
- 주소: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야촌리 43-1
- 전화번호: (0461)33-1551~2, 33-1009